

재중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강 차 연[†]

서울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알아봄으로써 탈북여성들이 탈북생활에서 보이는 대처노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을 위한 대안 마련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참여한 탈북여성들은 총 100명으로 주로 동북삼성에서 이들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국내의 여러 여성 집단에 비해 탈북여성들은 4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최종정착지, 북한에서의 인민반 수준, 탈북횟수, 중국공안의 체포와 북으로의 강제송환경험, 그리고 인신매매 경험의 내용에 따라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학력, 최종정착지, 가족을 탈북시킬 의향에 따라서는 사회적 지지추구에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은 연령, 최종정착지, 조선족에 대한 견해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소망적 대처방식은 연령, 학력, 탈북횟수, 조선족에 대한 견해, 북한의 가족유무, 공안의 체포와 인신매매를 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탈북, 탈북여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 교신저자 : 강차연, 서울여자대학교
E-mail : chaya@hanmail.net

1995년 이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들의 증가는 2001년 장길수 가족의 베이징주재 유엔 고등판무관실 진입을 계기로 국제적인 잇슈로 부각되었고, 2004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졌다. 탈북 자체의 역사는 거의 100여년이나 되었지만 오늘날 탈북자들의 탈북생활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위협받는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탈북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강제송환시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탈북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을 보면 1995년에서 1998년까지의 극심한 식량난이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리고 단기탈북 주민들의 경험과 보따리 장수, 해외동포의 북한방문, 해외유학생이나 근로자들의 귀환 등을 통한 외부세계 정보의 접촉, 북한 내 기강해이와 사적 경제생활로 인한 사회 일탈현상의 증가 등이 주요 탈북자 발생요인이 된다(이금순, 2003b ; 임채완, 2001). 한편 북한 외부의 요인들 중 우선 중국 요인으로는 동북삼성을 기반으로 한 국경지역의 조선족 사회의 보호와 지원, 국경 경비의 미흡, 중국경제발전을 탈북 발생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한국 요인으로는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 이미 입국한 탈북자의 잔여가족 입국 시도, 한국 사회교육방송의 영향을 들 수 있다(윤여상, 2003a ; 이금순, 2003a).

초기의 생존을 위한 탈북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한 탈북의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이외에도 돈을 벌어서 좀 더 잘 살거나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탈북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다(문숙재 외, 2000). 최근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에서 식량난을 경험하지 않은 중상층 탈북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 이를 지지한다(강차연, 2004). 또한 식량부족과 경제난으로 인한 개인적 탈북에서부터 가족단위의 탈북, 이로 인한 다양한 연령층, 기존 탈북자들의 잔류가족 탈북, 기획망명 등을 통한 대량 한국입국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윤여상, 2004 ; 제성호, 2002).

탈북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탈북자들의 삶의 형태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탈북 초기 식량과 생필품을 구해 다시 북으로 돌아가던 단기탈북과는 달리 현재의 언어를 습득하고 나름대로의 대처능력을 통해 체류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이금순, 2003b). 장기체류의 이유는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지 못했거나 이미 중국의 자유체제와 자본주의를 알고 나서 부터는 북한의 체제 속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이며, 처벌이 두려워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주된 이유이다. 즉 북한 체제변화에 가능성에 대한 절망, 장기 체류자에 대한 북한 송환시 가중처벌의 두려움,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비교인식, 그리고 한국행에 대한 희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체류 성격이나 원하는 최종 정착지와 관련하여 탈북자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유형은 단순히 중국에서 식량이나 생필품만을 구해 북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집단이며, 두 번째 유형은 은신처와 일자리를 구해 중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정착하고자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집단이다(강권찬, 2003 ; 강차연, 2004).

1990년대 중반이전 탈북자의 수가 소규모일 때 중국당국은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탈북을 부분적으로 묵인하였지만, 탈북자 문제가 대규모화, 국제화, 인권문제화되고 장기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들을 단속하여 강제송환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윤여상, 2004). 이와 더불어 탈북자의 중국 내 대량유입으로 인해 조선족 사회의 지원도 한계에 달했으며, 탈북자들이 일으키는 강절도, 살인, 인신매매와 같은 사회치안문제는 탈북자들의 중국생활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로 인해 거주지 확보와 생계유지 수단 확보의 실패, 노동력 착취, 불법감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문제가 일상화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북조선 귀환형과 중국 정착형의 비율이 높았지만, 기획망명 등으로 인한 탈북자 문제의 국제잇슈화와 이로 인한 중국당국의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은 탈북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면서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윤여상, 2003a ; 이원웅, 2003).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했던 1990년대 말 식량을 구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여성들의 몫이었다. 북한 내의 경제사정 악화로 식량과 생필품 배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장마당이 활성화되었다. 남성들은 군복무중이거나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보다 유리했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일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중국을 오가는 장사꾼들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강을 건너게 되면서 탈북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체 탈북자들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탈북여성들의 규모도 정확한 통계적 파악이 어렵다. 강제송환의 불안 때문에 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들에 의하면 남성보다는 여성 탈북자들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영자, 2000 ; 백영옥, 2002 ; 좋은 벗들, 1999). 특히 탈북여성들의

경우 남성탈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에서의 은신처 확보와 장기체류가 용이했다. 이는 주로 농촌지역의 조선족이나 한족 노총각이나 홀아비와의 결혼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결혼은 사실혼 또는 매매혼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대부분 인신매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탈북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크게 강제 납치형과 소개 유인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두 유형이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김영자, 2000).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부터 전문적인 인신매매꾼이나 브로커의 꼬임이나 협박, 납치 등에 의해 탈북하여 팔려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수차례에 걸쳐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도 상당수 있다. 대다수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희생자일 수 있으며, 성매매 역시 조직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다(이원웅, 2003).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탈북여성들은 자녀를 낳고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콜 중독자나 도박꾼, 성격파탄자 등에게 팔려와 감시, 감금, 폭행을 당하거나 강요에 의한 매춘,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해도 호구를 받지 못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많은 탈북여성들은 북한에 있을 당시 이미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든 타의든 중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양자 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중국 남편에게 북한의 결혼경험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문숙재 외, 2000). 더욱이 탈북자에 대한 국제 잇슈화와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해 자녀와 생이별하고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탈북여성들의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다. 이를 이용하여 공안을 가장한 단속꾼들이 탈북여성들과 결혼한 가정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아예 탈북여성을 납치하여 다른 곳에 팔아버리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 탈북여성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힘든 경험이 된다(백영옥, 2002).

인신매매와 성매매 피해자들은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고통을 느끼며, 체념과 우울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러한 침묵 속에서 심리적 충격과 고통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탈북여성들 중에는 정신과적 치료개입이 요망되는 경우가 많다(김영자, 2000).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인신매매 및 성매매 경험과 함께, 탈북여성들은 탈북생활에서 먹고사는 것뿐만 아니라 공안에 잡히거나 북으로 송환되는 것을 늘 걱정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 자녀교육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강차연, 2004). 탈북의 경험은 가정의 해체를 야기하고 불법체류로 인한 자유로운 행동의 제약과 심리적 불안을 갖게 한다. 부적응 상태가 만성화되면 심각한 심리장애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탈북여성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적응의 어려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탈북여성들은 이러한 탈북생활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방식을 1) 해로운 환경조건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 2)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디거나 이에 적응하는 것, 3)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는 것, 4)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5)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분되고 보았다. 이러한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대처 유형을 나누는 방식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는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가 효과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정서 중심적 대처가 효과적이다(Gramling & Auerbach, 1998). 전자의 구체적인 기술에는 심호흡, 근육이완훈련, 시각화 등이 있으며, 후자의 구체적인 기술에는 주장훈련, 시간관리, 사회기술훈련 등이 포함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중심적인 대처가 보다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olkman, 1984 ; Billings & Moos, 1984). 그러나 Lazarus 등(1985)은 사람들이 문제중심적, 정서중심적 대처방식 가운데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촉진적인 관계로 보고, 다양한 유형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희(1987)는 대처를 스트레스를 다루어 나가는 노력이라고 보고 그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대처방식을 구분하였다. 대처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적극적 대처에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가 포함되며, 대처노력이 내부로 투여되는 소극적 대처에는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가 포함된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환경 관련문제를 직면하고 스트레스의 근원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사회적 지지추구는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일으키는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정서완화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야기되는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이며, 소망적 대처는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과 사건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상상하는 대처방식이다.

탈북여성의 경우 탈북이라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은 상당 부분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존권과 생활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탈북 여성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는 이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남성에 비해 물리적이고 심리적으로 더 취약한 존재인 탈북여성들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개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이후 중국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 중 여성 탈북자들에 초점을 맞추어 탈북여성들이 탈북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양상을 알아봄으로써 탈북여성들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 마련을 위한 대안 제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 동북삼성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성인 탈북 여성 102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질문지를 완성하지 못한 2명의 자료는 제외하여 실제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의 수는 100명이었다.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1.3세(표준편차 15.0세)이며 17세에서 78세에 이르기까지 연령분포가 다양하였으며 이중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성들이 가장 많았다. 10명을 제외한 90명의 여성들이 결혼 경험이 있었으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들은 34명이었으며, 나머지 기혼여성들은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었다. 학력은 고등중학교가 가장 많았으며(66명), 대학을 포함한 전문학교 이상(18명), 인민학교(12명), 그리고 무학(4명) 순이었다. 출신지로는 함경북도가 가장 많았고(71명), 자강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초 탈북년도를 보면 식량난이 심했던 1998년과 1999년이 가장 많았으며(각각 29명씩), 최근으로 올수록 탈북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도구

사회 인구학적 실태조사 설문지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서 총 4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본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 15문항, 탈북 생활에 관한 문항 21문항, 인신매매관련 문항 4문항, 가족 및 친척에 관한 문항 7문항, 희망 정착지에 관한 문항 2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처방식 체크리스트

스트레스에 대한 탈북여성들의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김정희(1987)가 개발한 대처방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총 61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로 문제중심적 대처 21문항, 정서완화적 대처 22문항, 소망적 대처 12문항, 그리고 사회적 지지추구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표 1. 재중 탈북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및 탈북경험의 특성

항 목	구 분	빈도	항 목	구 분	빈도
연령	30세 미만	20	결혼형태	미혼	10
	30-49세	54		기혼(남편과 함께 삼)	34
	50세 이상	26		기혼(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	53
이중결혼				3	
출신지	함경북도	71	탈북년도	1997년 이전	8
	함경남도	9		1997년	9
	황해도	5		1998년	29
	평안북도	4		1999년	29
	평안남도	2		2000년	10
	량강도	3		2001년	10
	강원도	3		2002년 이후	5
	평양	2			
	남포	1			
북송환경험	있다	34	중국공안	있다	44
	없다	65	단속경험	없다	56
	무응답	1			
학력	인민학교	12	북에서의 인민반 수준	상	12
	고등중학교	66		중	49
	전문학교 이상	18		하	33
	무학	4		무응답	6
생활비	500위엔 미만	56	함께 사는 사람	혼자 산다	27
	500위엔 이상-1,000 위엔 미만	30		가족이나 친척과 산다	48
	1,000위엔 이상	12		다른 사람과 산다	25
호구취득 여부	있다	12	인신매매 경험	있다	24
	없다	88		없다	76
매춘경험	있다	9	성폭행경험	있다	20
	없다	91		없다	80
탈북횟수	1회	60	원하는 최종정착지	북한	34
	2회	28		중국	21
	3회 이상	12		한국	41
기타				4	
가족을 탈북시킬 의향	있다	42	북의 가족 유무	있다	87
	없다	51		없다	7
	가족없음	7		친척만 있다	6
처벌없을 시 귀향여부	있다	58	중국에서의 직업	있다	49
	없다	41		없다	51
	무응답	1			
해외친척 여부	없다	42	조선족에 대한 견해	좋은 사람들이다	47
	중국에 있다	33		나쁜 사람들이다	42
	한국에 있다	22		반반이다	11
	기타	3			

(‘하지 않음’ = 1, ‘아주 많이 함’ = 4).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문제중심적 대처 .74, 사회적 지지추구 .87, 정서완화적 대처 .79, 그리고 소망적 대처 .78로 나타나 양호하였다.

절차

자료는 2001년 8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주로 연길, 심양, 장춘 등 동북삼성 지역에서 수집되었다. 수집은 본 연구자를 포함해 2인에 의해 수행되었다. 먼저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탈북경험에 대한 비구조화된 개별면담을 하여 심리적 래포를 형성한 뒤 탈북여성들에게 측정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를 작성하도록 부탁하였다. 특히 실태설문조사지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한 문항씩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반응한 것을 기록하였으며, 대처방식 체크리스트는 연구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질문을 수시로 할 수 있게 하여 문항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결하였다. 질문지 작성이 완료되면 연구자가 다시 확인하여 빠진 문항이나 보충질문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자료처리

탈북여성의 정신병리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교집단들과의 Z 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들과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각각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원변량분석과 Tukey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결 과

탈북여성의 탈북경험의 특징

설문지를 통해 재중 탈북여성들의 탈북경험을 알아보았다(표 1 참고). 그 결과 중국에서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48%), 다음으로는 혼자 산다(27%), 다른 사람과 산다(25%)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단위의 탈북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생활비는 500위엔 이하가 가장 많았고(56%), 500이상-1,000위엔 미만은 30%, 그리고 1,000위엔 이상은 12%로, 상당수 탈북여성들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은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남아있었으며(87%), 이 중 45.2%의 여성들이 북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중국으로 탈북시킬 의향이 있었다. 반면 북한당국에서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귀향하겠다는 여성들도 절반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58%).

또한 약 절반의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51%), 12%의 여성들만이 중국신분증인 호구를 갖고 있었다. 호구는 중국의 남편이나 시댁에서 돈을 주고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 조선족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경우와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략 반반씩이었으며(각각 47%와 42%),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11%로 나타났다.

중국생활을 하면서 공안에 단속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44%였으며, 북으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34%였다. 그리고 강제송환되었든 자발적으로 귀향했든 다시 탈북한 여성들의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인신매매경험에 있어서는 24%의 여성이 인신매매를 경험

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성폭행 경험은 20%의 여성이, 그리고 매춘경험은 9%의 여성이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원하는 최종정착지는 한국이 가장 많았으며(41%), 북한(34%), 중국(21%), 기타(4%)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Z 검증을 통해 이를 다른 연구(이경민, 2001; 임정원, 1999; 최지연, 2001)에서 사용된 점수와 비교하였다. 이들 세 연구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할 이유는 동일한 질문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당시 자녀의 행동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최지연, 2001)과 직업유무에 따른 일반적인 중년여성집단(이경민, 2001; 임정원, 1999)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탈북여성들은 ADHD 아동의 어머니, 여교사, 그리고 중년 여성들에 비해 거의 모든 대처방식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DHD 아동의 어머니 집단과 비교해본 결과 탈북여성

들은 정서완화적 대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여교사 집단과 중년여성 집단과는 모든 네 가지 대처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처방식

탈북여성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이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학력, 탈북횟수, 원하는 최종정착지, 북한에서의 인민반 수준, 중국 조선족에 대한 견해, 북한의 잔여가족유무와 이들을 탈북시킬 의향, 공안에 의한 체포경험, 복송환 경험, 그리고 인신매매 경험에 따라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대처방식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세 미만의 여성들이 50세 이상의 여성들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F=11.765, p<.001$),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여

표 2.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 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비교집단과의 차이검증

	탈북여성의 M(SD) n=100	ADHD아동의 모 ¹ M(SD) n=44	여교사 ² M(SD) n=436	중년여성 ³ M(SD) n=232
문제중심적 대처	2.94(.62)	2.71(.59)*	2.71(.36)**	1.38(.62)**
사회적 지지추구	2.71(.61)	2.44(.46)**	2.57(.50)*	1.25(.67)**
정서완화적 대처	2.64(.47)	2.59(.50)	2.33(.32)**	1.03(.49)**
소망적 대처	3.12(.60)	2.76(.47)**	2.57(.40)**	1.43(.69)**

* $p<.05$, ** $p<.01$ ¹ 최지연(2001), ² 이경민(2001), ³ 임정원(1999)

표 3. 연령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30세미만	30-49세	50세이상	F값	사후검증
	M(SD)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3.05(.51)	3.12(.48)	2.48(.72)	11.765***	2,1>3
사회적 지지추구	2.70(.58)	2.85(.59)	3.12(.60)	5.491**	2>3
정서완화적 대처	2.59(.43)	2.77(.40)	2.43(.57)	4.952**	2>3
소망적 대처	3.13(.47)	3.27(.44)	2.80(.83)	5.896**	2>3

** p<.01, *** p<.001

성들이 비해 정서완화적 대처(F=4.952, p<.01), 소망적 대처(F=5.896, p<.01),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F=5.491, p<.01)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여성들의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 외에는 다른 집단

들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대처방식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에는 학력변인과 대처방식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을

표 4. 학력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이상	무학	F값	사후검증
	M(SD)	M(SD)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2.51(.71)	3.02(.50)	3.15(.56)	2.06(1.15)	6.731***	3,2>1,4
사회적 지지추구	2.36(.68)	2.81(.54)	2.72(.67)	2.00(.58)	4.050**	2>4
정서완화적 대처	2.53(.68)	2.65(.39)	2.76(.52)	2.32(.75)	1.241	
소망적 대처	2.86(.88)	3.15(.50)	3.34(.38)	2.27(1.05)	4.842**	3,2>4

** p<.01, *** p<.001

표 5. 탈북횟수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1회	2회	3회이상	F값	사후검증
	M(SD)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2.81(.62)	3.15(.57)	3.13(.53)	3.857*	2>1
사회적 지지추구	2.60(.63)	2.85(.54)	2.90(.56)	2.528	
정서완화적 대처	2.60(.49)	2.77(.45)	2.55(.43)	1.471	
소망적 대처	3.00(.63)	3.32(.51)	3.23(.52)	3.289*	2>1

* p<.05

제외하고 나머지 대처방식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그보다 낮은 학력을 가진 여성들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F=6.731, p<.001$). 고등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은 무학의 여성들에 비해 소망적 대처방식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842, p<.01$). 한편 고등중학교 집단의 여성들은 무학 집단의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50, p<.01$).

탈북횟수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처음 탈북한 여성들에 비해 2번째 탈북을 한 여성들이 문제중심적 대처($F=3.857, p<.05$)와 소망적 대처방식($F=3.289, p<.05$)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는 탈북여성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곳에 따라 대처방식에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소망적 대처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대처방식에 있어 희망정착지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행을 원하는 여성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거나 중국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여성들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F=5.337, p<.01$), 정서완화적 대처($F=2.926, p<.05$), 그리고 사회적 지지추구 방식($F=5.005, p<.01$)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망적 대처에 있어서도 한국행을 원하는 여성들이 나머지 집단의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대처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

표 6. 원하는 최종정착지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북한	중국	한국	기타	F값	사후검증
	M(SD)	M(SD)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2.79(.55)	2.66(.80)	3.18(.48)	3.29(.28)	5.337**	3>1,2
사회적 지지추구	2.48(.50)	2.58(.73)	2.97(.51)	2.67(.89)	5.005**	3>1
정서완화적 대처	2.56(.50)	2.47(.53)	2.79(.39)	2.76(.41)	2.926*	3>2
소망적 대처	3.04(.56)	2.88(.78)	3.29(.48)	3.29(.47)	2.661	

* $p<.05$, ** $p<.01$ 소망적 대처 $p=.052$

표 7. 북에서의 인민반 수준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상	중	하	F값	사후검증
	M(SD)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3.03(.74)	3.06(.47)	2.72(.72)	3.223*	2>3
사회적 지지추구	2.96(.59)	2.74(.60)	2.61(.62)	1.545	
정서완화적 대처	2.92(.65)	2.68(.43)	2.53(.47)	2.989	
소망적 대처	3.26(.81)	3.15(.45)	3.03(.70)	.779	

* $p<.05$ 정서완화적 대처 $p=.055$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F=2.661, p=.052$).

북한에서 살았을 당시의 생활수준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에 있어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신의 북한에서의 생활수준이 '중'이었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하'였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F=3.223,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활수준이 '상'이었다고 지각할수록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탈북여성들이 중국 조선족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에 따라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방식에서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족들을 좋은 사람들과 생각하는 여성들이 조선족들을 나쁜 사람들과 생각하는 여성들에 비해 정서완화적 대처($F=3.749, p<.05$)와 소망적 대처방식($F=6.644, p<.01$)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표 9와 표 10에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탈북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놓았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여성들은 가족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소망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595, p<.05$). 나머지 대처방식들에

표 8. 조선족에 대한 견해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F값	사후검증
	M(SD)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2.81(.66)	3.06(.49)	3.06(.78)	2.066	
사회적 지지추구	2.70(.62)	2.69(.62)	2.80(.54)	.160	
정서완화적 대처	2.51(.45)	2.76(.42)	2.78(.61)	3.749*	2>1
소망적 대처	2.92(.67)	3.36(.39)	3.06(.63)	6.644**	2>1

* $p<.05$, ** $p<.01$

표 9. 북한의 가족유무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가족있음	가족없음	친척만있음	F값	사후검증
	M(SD)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2.98(.58)	2.52(1.03)	2.94(.50)	1.773	
사회적 지지추구	2.70(.61)	2.76(.85)	2.78(.34)	.079	
정서완화적 대처	2.69(.45)	2.39(.63)	2.32(.48)	2.907	
소망적 대처	3.16(.55)	2.55(1.01)	3.17(.47)	3.595*	1>2

* $p<.05$ 정서완화적 대처 $p=.059$

표 10. 북의 가족을 탈북시킬 의향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있다	없다	F값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3.02(.55)	2.94(.59)	.495
사회적 지지추구	2.88(.59)	2.56(.56)	7.453**
정서완화적 대처	2.72(.47)	2.62(.45)	1.233
소망적 대처	3.15(.56)	3.17(.53)	.035

** p<.0

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 중 가족을 제 3국으로 탈북시킬 의향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추구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7.453, p<.01).

중국의 공안에게 단속 체포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대처방식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체포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문제중심적

표 11. 중국공안에 의한 체포경험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없다	있다	F값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2.78(.66)	3.15(.50)	9.392**
사회적 지지추구	2.60(.65)	2.84(.52)	3.942
정서완화적 대처	2.60(.50)	2.70(.44)	.937
소망적 대처	3.00(.64)	3.26(.51)	4.843*

* p<.05, ** p<.01 사회적 지지추구 p=.05

표 12. 북송환경험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없다	있다	F값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2.84(.61)	3.14(.59)	5.450*
사회적 지지추구	2.67(.65)	2.78(.52)	.386
정서완화적 대처	2.65(.47)	2.64(.49)	.939
소망적 대처	3.06(.61)	3.22(.59)	.217

* p<.05

표 13. 인신매매경험 변인과 대처방식간의 일원변량분석

	있다	없다	F값
	M(SD)	M(SD)	
문제중심적 대처	3.21(.53)	2.86(.62)	6.237*
사회적 지지추구	2.71(.64)	2.71(.60)	.000
정서완화적 대처	2.79(.47)	2.60(.47)	3.114
소망적 대처	3.40(.44)	3.03(.62)	7.267**

* p<.05, ** p<.01

대처(F=9.392, p<.01)와 소망적 대처방식(F=4.843, p<.05)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체포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사회적 지지추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되었든 아니면 북한의 안전보위부에게 직접 체포되어 송환되었든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450, p<.05).

마지막으로, 표 13에 제시된 것처럼 인신매매 경험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신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문제중심적 대처(F=6.237, p<.05)와 소망적 대처방식(F=7.267, p<.01)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처방식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재중 탈북여성들의 탈북실태와 이들이 탈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중 탈북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북여성들은 국내의 장애아동을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최지연, 2001), 여교사 집단(이경민, 2001), 그리고 중년여성 집단(임경원, 1999)과 같은 다른 여성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그리고 소망적 대처방식 모두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대처방식에 있어서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Fairbank 등(1991)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탈북여성들에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Lazarus 등(1985)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탈북여성들이 문제중심적인 대처행동과 정서중심적인 대처행동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유형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적극적 대처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극적 대처

에 비해 보다 적절하고 심리적 적응을 반영한다는 Folkman(1984)의 주장에 의하면 탈북여성들이 문제중심적 대처를 포함해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소망적 대처를 포함해 소극적 대처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탈북여성들이 심리적 부적응이나 장애를 가질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탈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재중 탈북여성들이 매순간마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일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탈북여성들은 연령, 학력, 탈북횟수, 원하는 최종정착지, 북한에서의 인민반 수준, 중국 조선족에 대한 견해, 북한의 잔여가족유무와 이들을 탈북시킬 의향, 공안에 의한 체포경험, 복송환 경험, 그리고 인신매매 경험과 같은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탈북여성들은 연령이 낮거나, 학력이 높은 경우, 한국행을 원할 경우, 북한에서의 인민반 수준이 중상이상이라고 생각할 경우, 탈북횟수가 2회인 경우, 중국공안의 체포와 북으로의 강제송환을 겪은 경우, 또는 인신매매를 경험한 경우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학력이 높거나, 한국행을 원할 경우, 또는 가족을 탈북시킬 의향이 있을 경우,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은 연령이 낮거나, 한국행을 원할 경우, 또는 조선족을 나쁘다고 생각할 경우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령이 낮거나, 학력이 높은 경우, 탈북횟수가 2회인 경우, 조선족을 나쁘

다고 생각할 경우,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 공안의 체포 또는 인신매매를 경험한 경우에는 소망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의 결과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령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에서 탈북여성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대처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 70대의 고령 여성들이 다른 연령의 여성들에 비해 중국에서의 생활력이 약하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노령 여성들은 구체적인 희망없이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50세 이전의 여성들은 고령 여성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업을 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하며, 동시에 통제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빨리 감정을 통제하고 다른 일을 찾는다. 다시 말해 연령이 낮을수록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인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탈북여성들은 학력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문제중심적인 대처를 많이 하였다. 즉 고등중학교(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 인민학교(초등학교)나 무학의 여성들보다 문제중심적인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추구는 고등중학교 학력의 여성들이 무학의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극적 대처에서는 높은 학력의 여성들이 무학의 여성들에 비해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의 여

성들이 대부분 60, 70대의 고령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탈북 생활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탈북횟수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방식에서만 나타났는데, 처음 탈북한 여성들에 비해 두 번째 탈북한 여성들이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를 다른 대처방식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3회 이상 탈북한 여성들은 다른 집단의 여성들과 대처방식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이는 탈북을 처음 했을 때보다 두 번째 했을 때 나름대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다가 탈북횟수가 증가하면서 노력을 덜 기울이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넷째, 북한에 살았을 당시 자신의 인민반 수준이 어떠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이 중류층이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하류층이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 역시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굶어죽는 위협감을 갖지 않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 탈북한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탈북한 여성들에 비해 더 적극적인 대처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소망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남성들에 비해 가족을 중시하는 여성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그리며 상황이 좀 더 나아져 함께 살고자 하는 희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더욱이 개별적 면담을 통해 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는 여성들은 특히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컸으며, 다시 북으로 돌아가든 중국으로 자식을 데리고 나오든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킬 마음이 있는 여성들은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서는 혼자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중국 조선족들에 대한 견해에 따라 대처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조선족들을 자신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은 조선족을 자신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보다 소극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지만 이들로부터 오히려 착취와 위협을 경험한 여성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좋은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고통스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볼 수 있다.

일곱째, 탈북여성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나라에 따라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행을 원하는 여성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거나 중국에서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여성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든 대처방식들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에 비해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의 적극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며, 중국에 머물러 있는 여성들에 비해서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

서완화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국행을 결심한다는 것은 북으로 송환되었을 때 더 많이 처벌의 위협과 기획망명 등을 통한 단속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을 통제하고 한국에서의 좀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러한 심리적 고통에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북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조용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향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여덟째, 실제로 중국공안에 의해 단속된 경험이 있거나 북으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과 송환은 탈북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단속과 송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을 함께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시 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인신매매는 주로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탈북자라 해도 여성들만이 겪는 일이다. 따라서 단속이나 송환과 같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인신매매 역시 탈북여성들에게 정신

적 고통을 준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는 인신매매 경험은 탈북여성들로 하여금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신매매는 나이는 여성들보다는 대부분 50세 미만의 여성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영향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탈북여성들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여성들의 생활상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용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탈북여성들을 표집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에 포함된 탈북여성들이 전체 탈북여성들을 대표한다고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연구자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탈북여성들의 특성에서 편파된 표집을 야기했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통제집단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여성들의 자료를 비교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특히 자료의 수집절차 및 방법과 집단구성의 대표성에 있어 비교를 위해 사용된 연구들과 본 연구의 동일성을 가정하는 것에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 적절한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비교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측정도구의 사용에 있어 탈북여성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탈북여성이 처한 극단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설문지와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들의 대처방식을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반응을 끌어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질문지의 경우 불성실하거나 임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인신매매나 성폭행과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보다 심층적이고 질적인 면접이나 관찰법을 사용함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완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탈북여성들의 현재 탈북경험을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가정하고 이루어진 바, 탈북여성들의 주관적인 스트레스 지각이나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되는 세부적인 탈북생활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환경의 실제적인 상황과는 달리 그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환경에 대한 대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같은 경험이라도 처해진 상황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스트레스 영역을 충분히 유형화하여 이것이 대처방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국한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함께 이에 따른 정신건강이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탈북여성들

의 심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강권찬 (2003). 기획망명 후의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민족연구, 10, 166-180.

강차연 (2004). 재중 탈북여성들의 생활실태. 여성연구, 19, 59-78.

김수암 (2002).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북한학보, 27, 155-181.

김숙임 (1999). 북한이탈여성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욕구와 민간단체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달 (1999). 재중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자료.

김영수 (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9, 102-117.

김영자 (2000).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제 2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자료.

김정남 (2000). 북한 난민의 강제송환과 처벌문제. 제 2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자료.

김정미 (1999). 탈북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16.

- 박혜정 (2004). 뇌졸중 환자가족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백영옥 (2002). 중국 내 탈북여성 실태와 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6(1), 241-264.
- 신숙경 (1992). 중년기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 심진현 (2003). 병적 도박환자 배우자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응전략.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1998). 민족 돕기와 통일. 우리민족 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 윤여상 (2003a). 탈북자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11(1), 353-375.
- 윤여상 (2004). 재외탈북자 실태- 현황과 대안을 중심으로. 제 7기 북한 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 발표논문.
- 엄경남 (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민 (2001). 여교사의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연세대학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순 (2003a).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 변화와 전망. 일본 국립민족학 박물관 지역연구 기획교류센터·동경대 사회정보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
- 이금순 (2003b). 탈북자 발생배경과 향후 전망. 일본 지역연구센터 세미나 발표논문.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웅 (2003). 재외탈북자 문제 : 현황과 정책적 제언. 제 4기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자료.
- 이장호 (1997).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응프로그램의 개발(하). 월간 북한, 12월호. 166-179.
- 이철순 (1999). 탈북 귀순자의 사회적응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원 (1999). 중년여성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채완 (2001).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9, 54-78.
- 임태근 (2000).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 민주법학, 17, 131-147.
- 장혜경,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광원 (2001). 탈북주민의 실태와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익수 (2001). 탈북청소년 초기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성호 (2002). 해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처리방향. 서울 국제법 연구 9(1). 21-73.
- 조천현 (2002). 탈북경로의 유형 및 실태와 현황. 월간 북한지, 10월호, 62-68.
- 좋은벗들 (1998).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정토출판.
- 좋은 벗들 (2000). 2000년 8월의 조선-중국 국경지역 난민보고서. www.jungto.org/kr.
- 최지연 (2001). 주의력결핍 및 과잉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 하랄드 마스 (2000). 잊혀진 탈북난민문제: 북·중 국경지대의 탈북자들. 제 2회 북한

-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자료.
- 한유정 (2004). 여대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 이소래 (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121-141.
- 황은실 (2001). 탈북 청소년의 재사회화 교육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illings, A .G.,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b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2), 377-391.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4), 839-852.
- Folkman, S. K.,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457-459.
- Gramling, S. E. & Auerbach, S. M. (1997). *Stress Management workbook*. Prentice Hall.
- Lazarus, R. S. (1984), *Patterns and adjustment and human effectiveness*, NY: McGraw-Hill Book Co.
- Lazarus, R. S., DeLongis, A., Folkman, S., Gruen, R. (1985). Stress and adaptational outcomes: The problem of confounded measures. *American Psychologist*, 40, 770-779.
- Lazarus, R. S. &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The Stress Copying Style of the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Kang Cha Yeun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ife situation of the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to prepare the further interventions for them by investigating the stress copying styles of them.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s 100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data was collected in three districts of the northeast in Chin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got the high scores than other female South Korean groups in all 4 copying styles. The results of analysis of differences in copying style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al characters show that age, education, final resettlement place, economic level, time of escape from North Korea, experiences of arrest, extradition to North Korea, or human traffics variables are related with the differences in problem solving style. Education, final resettlement place, or intention about family members' escape variables are related with the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eeking style. The differences in emotion-reducing style are related with age, final resettlement place, or opinion about the Chinese-Korean. And the women who had experiences of arrest, extradition to North Korea, or human traffics showed the differences in wish style as well as in problem solving style. Finally the restric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presented.

key words :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Stress copying style